

# 三國時代 一 蓮花紋

## 形式에 關한 比較試論

秦 弘 燮

美術分野에서는 서로의 密接한 關聯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文獻에 나타나는 匠人の 往來 또는 現存 遺物을 通해서 볼 수 있는 樣式的인 연관을 생각할 때 相互의 영향이 認定되나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영향되었는지가 問題이다. 高句麗는 많은 蓮花 壁畫가 있지만 其他 百濟, 伽倻, 新羅는 各其 唯一例적만을 가지고 比較한다는 일은 아직 時期尙早인 感이 없지 않으나 筆者는 一九七一年 公州에서 發見된 百濟 武寧王陵의 遺物中에서 나타난 一蓮花紋을 注目하게 되었고 매우 初期의 인 일이 되겠지만 이 一聯의 遺物을 通하여 相互의 樣式的인 연관을 比較하여 보고자 한다.

佛敎傳來以後 三國이 各種 紋樣에 蓮花를 多樣하게 利用하여 왔음은 現存한 造形美術品을 通하여 周知하는 바이다. 三國은 같은 蓮花를 紋樣에 利用하였으므로 表現手法는 스스로 다른바 있어 各其 特徵을 보이고 있는 點도 이미 先學들이 指摘한바 있다. 高句麗의 蓮花가 直線的이라고 한다면 百濟의 그것은 曲線的이라고 하겠고 高句麗의 蓮花가 硬直剛健한데 비해 百濟의 그것은 溫柔明朗하다고 比較되고 있다. 이같은 比較는 主로 瓦當, 佛像臺座等 立體的으로 表現된 蓮花에 의한 것이었지만 線으로 表現하는 繪畫에서도 同一하리라고 推測되어 왔다. 다만 繪畫部門에 있어서는 比較할만한 三國의 繪畫資料가 없어서 論議는 具體的이 될 수 없었다. 事實 高句麗의 畫蹟으로는 많은 壁畫古墳이 發見되어 相當數의 蓮花를 볼 수 있었으나 百濟의 畫蹟은 오직 扶餘 陵山里古墳 天井의 蓮花와 雲文뿐이었고 古新羅의 畫蹟은 榮州 順興의 壁畫古墳이 發見된 때까지는 全無하였다. 따라서 繪畫를 通한 三國 蓮花의 比較는 不可能하였던 것이다. 多幸히 一九六三年에 高靈 古衙洞에서 伽倻時代 壁畫古墳이 發見되어 義道와 玄室 祠堂에서 蓮花 壁畫가 確認되었고 一九七一年에는 榮州 順興에서 「乙卯年於宿知述干」의 墓誌銘과 함께 壁畫古墳이 發見되어 이 또한 義道 祠堂에서 大蓮花가 確認됨에 이르러 비로소 繪畫를 通한 三國의 蓮花의 比較가 可能하게 되었다.

三國時代의 文化는 三國이 相互 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高句麗, 百濟의 古墳壁畫는 이미 많은 先學들의 言及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再論하지 않겠고 다만 武寧王陵의 遺物과 順興古墳의 壁畫 蓮花에 關하여는 먼저 그 大綱을 보고 넘어가야 할것 같다.

武寧王陵 遺物中 銀製 托蓋은 百濟 特有的인 線을 가지고 있는바 特別히 蓋鈕를 中心으로 그 周圍에 八瓣蓮花가 장식되어 있다. 鈕를 中心으로 瓣端이 둥근 八瓣蓮花를 透刻 혹은 陰刻한 金板을 붙였다. 瓣端은 둥글고 瓣內는 瓣周에서 一定한 間격을 두고 馬蹄形으로 透刻하고 남겨놓은 間격에는 여러 줄 平行縱線을 陰刻하였다. 이 八葉蓮花 안쪽에는 다시 작은 半圓形이 있고 그 안에 꽃술같은 여러 줄의 線이 陰刻되었다. 이 金板 蓮花밖으로는 瓣端이 둥근 蓮花를 同心二條의 陰刻線으로 表現하고 內線과 外線 사이에는 蓋鈕 周圍에서와 같은 形式의 葉脈같은 여러 줄의 縱線으로 각각 陰刻하였다. 이 蓮瓣과 蓮瓣 사이에는 다시 끝이 매우 날카롭고 內彎된 線으로 間瓣을 그렸고 瓣內에는 瓣周를 따라 역시 꽃술같은 縱線 數條가 陰刻되었다. 이같이 瓣端을 따라 陰刻된 縱線은 鈕에 表現된 仰蓮瓣에서도 볼 수 있다. 이같은 蓮花의 表現樣式은 아직까지 百濟 遺物에서는 볼 수 없었던 樣式으로 注目되었다. (圖 5)

다음 順興 古墳 義道 天井에 그린 蓮花는 能熟한 筆致로 그려진 壁畫이다. 三國의 蓮花가 모두 偶數로 表現되는데 對하여 七葉 重瓣이라는 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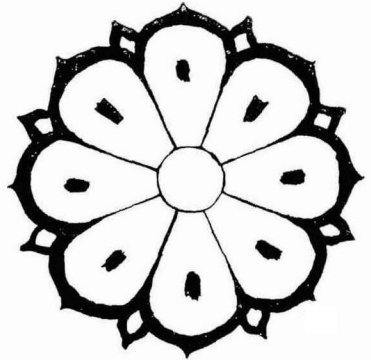


圖 1. 扶餘陵山里古墳天井蓮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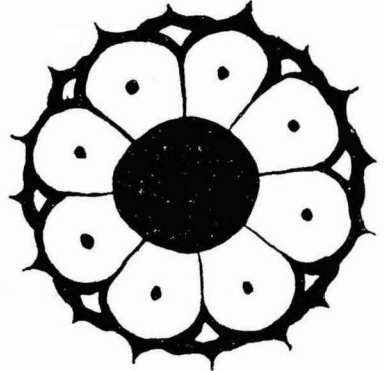


圖 2. 眞坡里第4號墳玄室南壁蓮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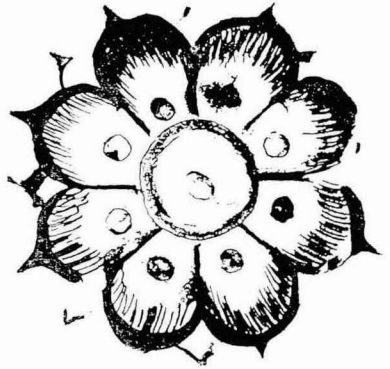


圖 3. 內里第1號墳玄室北壁받침蓮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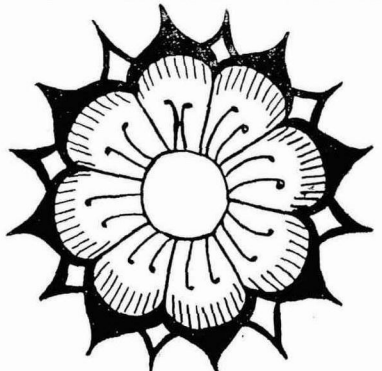


圖 4. 通溝西崗第10號墳蓮花

도 特異하지만 瓣內에는 가득 찰 程度로 여러줄 縱線이 그려져 있고 中心部는 線이 明瞭하지 않으나 꽃술같은 形態가 그려져 있으며 그밖으로는 瓣根의 位置에 두 줄씩의 꽃술같은 것이 그려져 있다. 이 蓮花에서 注目되는 點은 瓣內에 그려진 數條의 紅色 線과 그 안에 그려진 두 줄의 紅色 꽃술같은 線이다. 畫蹟으로서 唯一한 古新羅의 例이기 때문에 比較가 되지 않지만 다른 造形美術品에 나타나는 古新羅의 蓮花와 比較하더라도 이러한 意圖가 나타나는 例은 없고 오히려 그 表現手法은 武寧王陵의 托蓋 蓮花의 手法과 相通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 二例의 年代를 考證하면 武寧王陵의 托蓋은 王妃에 屬했던 遺物이라고 함으로 王妃의 昇遐가 五二六年임으로 下限을 이때에 두어야 할 것이고 順興 壁高 古墳은 墓誌銘에 나타나는 「乙卯年」의 干支를 根據로 그 以下의 墓誌 또는 壁畫 手法으로 보아 五九五年으로 推定하는 바이다.

여기 添加하여 두고자 하는 것은 高麗 古衙洞 古墳의 蓮花文이다. 이 蓮花는 羨道와 玄室 천장에 相當數 남아 있는 것으로 脫落이 많음은 遺憾이나 蓮花의 大體의 輪廓은 把握할 수 있다. 그 基本形은 八葉 重瓣인데 內外各 瓣間에는 重瓣을 表示하듯 間葉을 그렸다. 蓮瓣은 潤瓣이며 그다지 強調하지는 않았으나 瓣端은 尖頭形이다. 안쪽 蓮瓣에는 瓣

中央에 한 줄씩의 縱線을 그었고 主로 瓣 外周에 붉은 彩色를 친하게 칠한 點이 注目되었다.

三

이제 伽倻와 함께 三國의 蓮花 壁畫가 가추어졌고 다시 百濟의 새로운 蓮花가 出現하여 이들을 比較함에 있어 相互間 類似點이 많음을 본다. 以下 繪畫로서의 蓮花文의 例가 가장 많은 高句麗時代 蓮花와 相互 比較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본다.

먼저 陵山里 古墳 天井의 蓮花紋(圖 1)과 類似한 蓮花紋을 高句麗 古墳 壁畫에서 찾아 본다면 眞坡里 第四號墳 玄室 南壁(圖 2)、內里 第一號墳 玄室(圖 3)、通溝 西崗 第十號墳(圖 4) 등의 蓮花를 들 수 있다. 陵山里 蓮花는 蓮子가 하나거나 혹은 蓮子가 없는 子房 周圍에 八葉 蓮花가 있되 瓣端이 그다지 날카롭지 않음은 부드러운 尖形이고 瓣內에는 珠文이 하나씩 있다. 蓮瓣과 蓮瓣 사이 外周에는 幅이 좁은 間葉이 있어 重瓣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眞坡里 蓮花는 若干 큰 子房이 蓮子없이 彩色되어 있고 瓣端은 若干 날카로운 尖形을 이루며 間葉의 幅이 넓어졌을 뿐 陵山里 蓮花와 全然 同一한 形態이다.

다음 內里 蓮花는 瓣端이 더욱 날카롭고 瓣端 가까이 縱線으로 表示된 葉脈이 있을 뿐 다른 部分은 陵山里 蓮花와 더욱 흡사하다. 子房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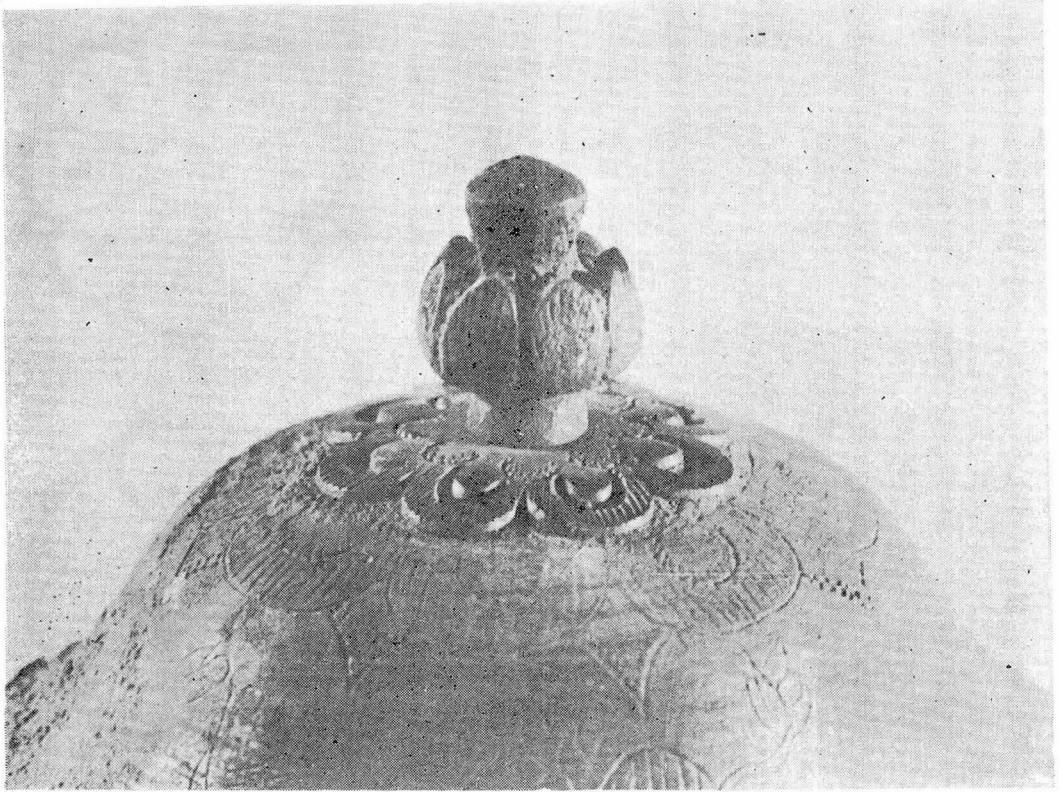


圖 5. 百濟武寧王陵出土 王妣托蓋蓋蓮花

에는 하나의 蓮子가 뚜렷히 나타나 있어 陵山里 蓮花中 蓮子가 있는 形式과 同一하며 瓣內에 있는 하나씩의 珠文 또한 兩者의 類似點을 가장 印象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 通溝 西崗의 蓮花紋은 瓣端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瓣內에는 珠文 대신 두 줄의 꽃술이 表現된 點이 다르다. 瓣端 가까이에는 葉脈은 陵山里 蓮花에는 없으나 內里蓮花와 同一한 形式이다. 그러나 陵山里 蓮花紋에 葉脈만 있었다면 瓣端이 高句麗 蓮花같이 날카로운 尖形이 아니고 꽃술이 없을 뿐이지 內里나 이 通溝 西崗의 蓮花와 同系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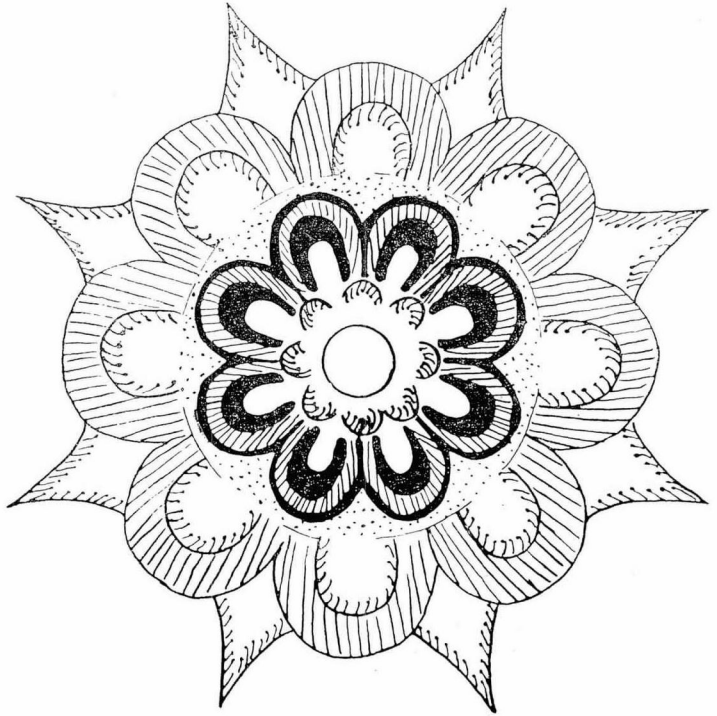


圖 6. 百濟武寧王陵出土 王妣托蓋蓋蓮花

이 一連의 蓮花紋의 共通點은 中央에 子房이 있고, 單瓣의 重瓣 蓮花인데 外瓣은 끝만 약간 보이는 間葉으로 表現된 點, 瓣內에 一箇式의 珠文이 있는 點等이다. 瓣端 가까이 에 그린 葉脈은 陵山里 蓮花에서와 같고 오직 高句麗 蓮花에서만 볼 수 있는 形式이다. 大體로 基本 形式이 同一한 點이 認定되며 葉脈의 表現은 高句麗 蓮花의 特色임을 알 수 있다.

以上 四例의 蓮花는 製作年代에 있어 絶對年代를 들어 그 先後를 말할 수는 없으나 大體의 年代는 서로 比等할 것으로 推定된다. 이에 대하여 金元龍 教授는 以上 壁畫가 있는 高句麗 古墳의 築造年代를 第三期인 六世紀後期에서 七世紀前半으로 잡고 있다. (同 教授·韓國美術史 高句麗時代 第二節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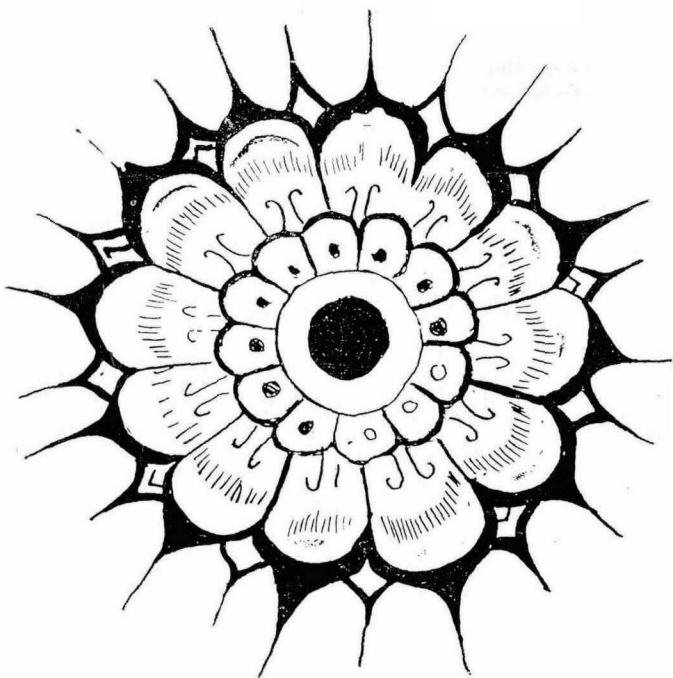


圖 7. 雙楹塚前室天井蓮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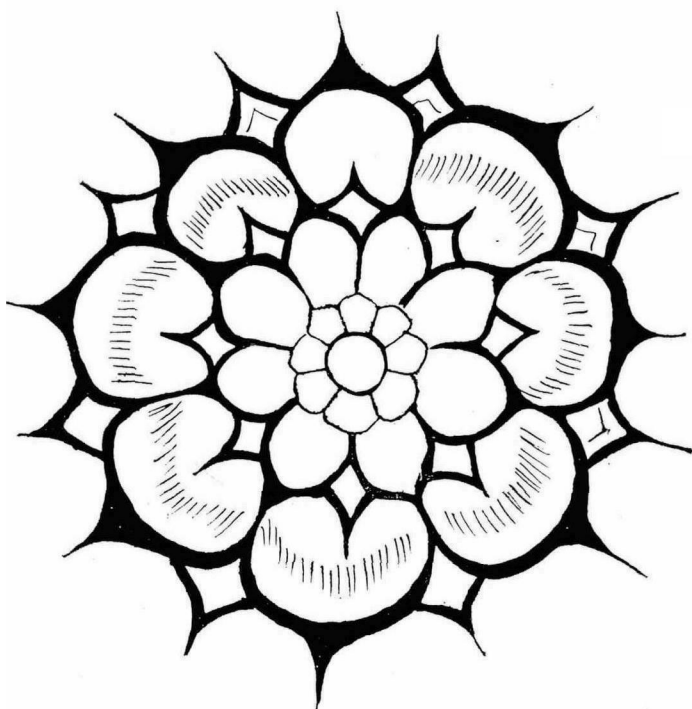


圖 8. 雙楹塚後室天井蓮花

#### 四

다음으로 最近에 注目된 또 하나의 百濟 蓮花文인 武寧王妃用 托蓋의 蓮花紋(圖 5·6)을 보기도 한다.

이 蓮花紋의 特徵은 外周에 있는 間葉만이 날카로운 尖頭形일 뿐 다른 蓮瓣은 瓣端이 둥글다는 點과 瓣內에 縱線과 꽃줄같은 線으로 葉脈을 表示한 點이다. 이 蓮花文의 裝飾意圖는 鈕周圍는 別途의 金屬을 接着하여 鈕를 裝飾하고 그 周圍에는 直接 器體에 線刻하여 그릇 自體를 裝飾하는 두가지 效果를 내러한 듯하다. 그러나 兩者의 手法는 全然 同一하다.

이와 類似한 蓮花文은 雙楹塚 前室(圖 7)과 後室의 枕장(圖 8)에서 볼 수 있다. 이 雙楹塚 蓮花와 托蓋 蓮花의 類似點을 찾는다면 날카로운



圖 9. 榮州順興古墳美道蓮華紋

瓣端이라고 하겠다. 線刻과 繪畫라는 技法上的 差異로 因하여 한쪽은 날카롭고 內彎된 銳角形이 되었고 한쪽은 針形으로 길게 延長된 點이 다를 뿐 表現하고자 하는 意圖는 同一하다. 또 雙楹塚 蓮花가 모두 子房을 中心으로 작고 瓣端이 둥근 花瓣이 있는 點은 托蓋에 있어 子房에 대신한 鈕 周邊에 瓣端이 둥근 花瓣을 配置한 點과 매우 恰似하다. 다

음 雙楹塚 後室 甕장 花瓣內의 縱線이나 前室 甕장 花 瓣內의 縱線과 二條의 꽃술은 表現手法과 數의 差異는 있으나 모두 同一한 樣式의 箭疇에 속한다고 하겠다. 以上의 細部の 類似點은 托蓋의 蓮花를 對했을 때 곧 雙楹塚 蓮花를 連想하리 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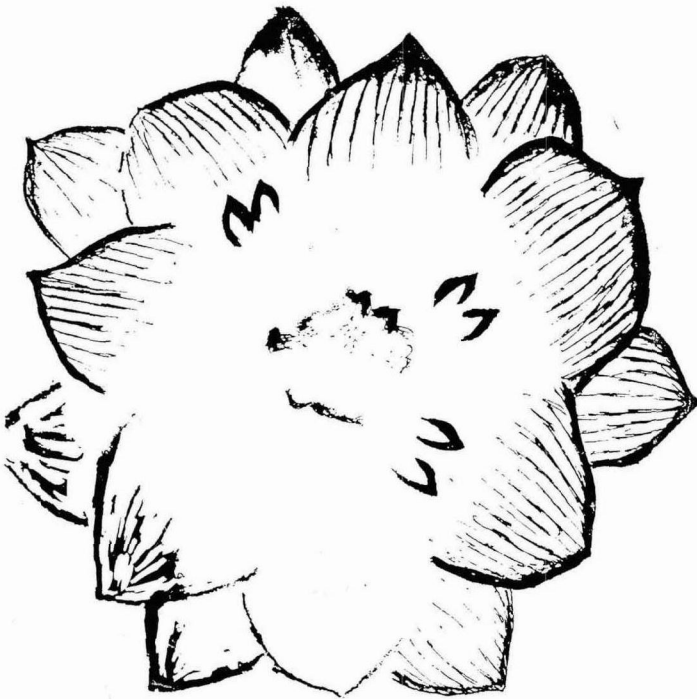


圖 10. 榮州順興古墳美道天井蓮花

全體에서 통기는 感覺이 매우 가까운 親緣關係를 느끼게 된다. 이 두 蓮花의 年代에 關하여는 雙楹塚 蓮花를 五世紀末에서 六世紀初로 推定하고 있으며(金元龍 前掲書 參照) 托蓋은 王妃의 卒年인 五二六年을 下限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時代的으로도 雙楹塚이若干 앞서면서 거의 같은 時期의 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

五

順興의 蓮花(圖 9·10)는 瓣周에 紅色 周緣을 돌리고 瓣內에도 紅色으로 縱線이 그려져 있으며 間葉에도 같은 縱線이 있다. 蓮瓣은 潤瓣이고 瓣端은 그다지 날카롭지 않은 尖頭形이다. 瓣根에 두 줄씩의 八形 꽃술이 세곳에서만 分明히 보이고 子房 周圍에도 꽃술같은 線을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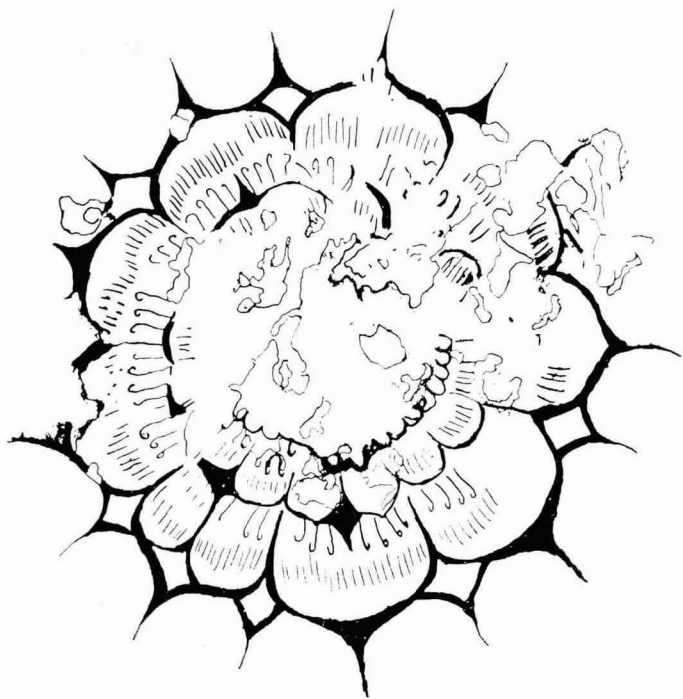


圖 11. 肝城里蓮花塚前室天井蓮花

있다. 이蓮花의 瓣內 縱線과 類似한 手法은 內里 第一號墳 支室 北壁 半室 第二段의 蓮花(圖 3)에서 볼 수 있다. 이蓮花는 雙楹塚 蓮花와 같이 瓣端이 길게 뻗은 高句麗 蓮花 特有的의 針形이 아닌 尖頭形일뿐 아니라 瓣周에 彩色이 있고 瓣端 周邊에 가는 縱線이 아닌 尖頭形일뿐 아니라 順興 蓮花와 表現 意圖가 同一하다고 하겠다.

다음에 肝城里 蓮花塚 前室 天井 西區의 蓮花(圖 11)와 比較하면 子房은 削落으로 不分明하고 그 附近도 損傷이 많으나 子房 周圍에 小形 蓮花가 둘러있고 大體로 二倍정도 크기의 蓮花가 그 밖으로 그려져 있다. 이 內外의 大小 蓮瓣에는 모두 縱線과 꽃술이 表現되어 있는바 內區에 있는 꽃술의 끝이 좀더 꼬부라지면 順興 蓮花의 八形 꽃술같은

形態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潤瓣인 點, 큰 子房等 肝城里 蓮花의 瓣端에서 針形의 表現만 덜하다면 兩者는 매우 類似한 形式임을 볼 수 있다.

以上 高句麗의 두 蓮花의 年代는 六世紀 後半으로 推定되고 있다.(金元龍 前掲書 參照)

六

다음 高靈 壁畫(圖 12)는 狀態가 좋지 못하나 內區에 狹瓣과 外區에 潤瓣의 二重의 蓮花를 그렸고 各其 間葉의 表現되었다. 이러한 形式의 蓮花를 高句麗 蓮花에서 찾는다면 雙楹塚 後室 천장의 蓮花(圖 8)를 들어야 할 것이다. 雙楹塚 蓮花는 瓣端이 針形으로 날카롭고 潤瓣 蓮花에 縱線이 있으며 子房 周圍에 小花瓣이 있음이 다를 뿐이다. 이에 대하여 高靈 蓮花는 瓣端이 뾰족하나 針形은 아니며 狹瓣 蓮葉속에는 珠文이 아닌 線이 그려졌고 큰 子房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狹瓣과 潤瓣의 配合, 이 二重의 蓮花에 각각 表現된 間葉, 狹瓣 蓮葉 안에 한쪽에는 線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瓣端의 윤곽을 따라 U字形의 線이 있는 點등은 이 두 蓮花의 類點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七

以上 南韓에서 發見된 四種 蓮花를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나는 蓮花의 比較한 결과 많은 類似點으로 인해 親緣關係가 있음을 보아왔다. 여기서 우리는 高句麗 古墳壁畫를 떠나서 南韓에서 發見된 壁畫만을 比較하여 보고자 한다.

이 四種의 蓮花는 三種이 繪畫이고 一種이 線刻이라는 點에서 表現의 技術上 差異가 있을 것이고 感覺도 다른바 있어 먼저 繪畫로 된 蓮花를 比較하면 瓣端이 針形이 아닌 點이 共通되게 나타난다. 이는 南韓의 蓮花의 一般의 傾向으로 三國期 新羅나 百濟의 瓦磚等에 나타나는 蓮花가 모두 高句麗의 그것에 비해 優雅한 手法을 보이는 點과 相通하는 性格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蓮瓣이 모두 潤瓣인 點을 들 수 있다. 다만 高靈 壁畫의 內區 蓮瓣이 狹瓣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瓣端 左右가若干 擴大되어 潤瓣의 感覺을 풍기고 있다. 이같은 潤瓣의 表現은 針形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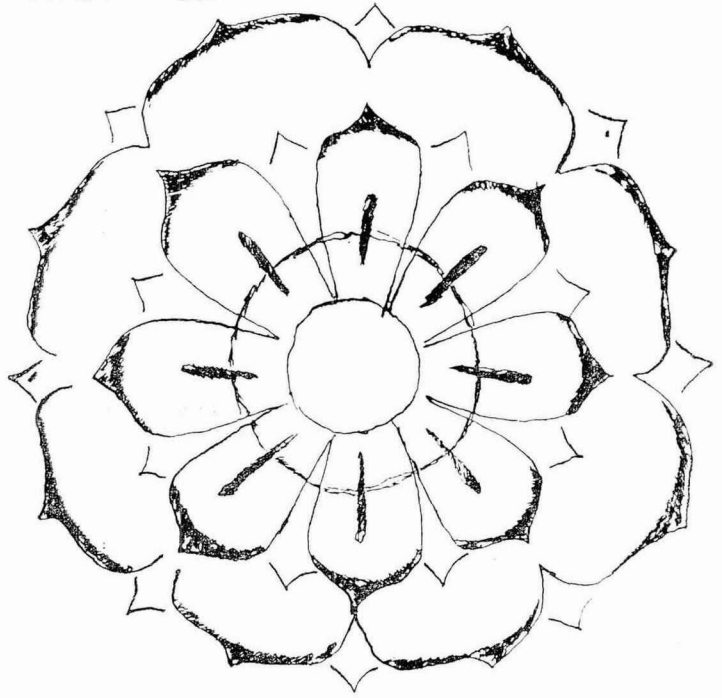


圖 12. 高靈古衙洞古墳羨道天井蓮花

년 尖頭形 瓣端과 아울러 溫柔闊達한 感覺을 주는 또 하나의 特色이라고 하겠다. 또 瓣內에 珠文, 꽃술, 線等을 添加한 點이 共通된다. 順興蓮花의 八形은 高句麗 壁畫에도 있듯이 꽃술의 變形으로 보고저 하며 高靈蓮花의 線도 子房에서 出自한 꽃술로 보아 大過 없을 듯하다. 다만 扶餘 蓮花는 珠文이 너무 瓣端 가까이 있어 곧 꽃술의 略式이라고 하기를 주저하나 或은 이 點이 좀더 復雜해지면 順興 蓮花의 瓣內에 그려진 葉脈으로 變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繪畫에서의 共通點은 托蓋의 線刻 蓮花에서도 若干의 圖案化는 있다고 볼 수 있다. 外周 蓮瓣 사이의 間葉은 아직 高句麗 壁畫에와서 같이 針形은 되지 않았으나 매우 날카롭고 間葉 안쪽은 蓮瓣은 尖

形이 아니나 여기 尖形만 表示한다면 다른 三 蓮花에서와 같은 感覺의 蓮瓣이 될 것이다. 또 이 蓮花에는 順興 蓮花에서와 같은 縱線 葉脈의 表現이 있으며 매우 圖式化된 꽃술이 안을 向하여 蓮瓣 周邊에 빈틈없이 線刻되었다. 이 蓮花는 一見 高句麗 蓮花와의 親緣을 느끼면서도 他 三의 繪畫 蓮花와도 共通點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南韓의 線을 위주로 한 四종의 蓮花가 피차 若干의 差異를 보이면서도 樣式的으로 感覺의으로 多分히 共通된 點을 가지고 있다는 點은 이 四者의 樣式的 出自가 어느 한곳에 있고 同時에 彼此의 交流도 이루어졌다는 假定을 充分히 뒷받침하여 주었다. 托蓋의 蓮花가 圖案化의 경향이 농후하고 高靈과 扶餘의 蓮花가 매우 整頓된 形式을 보임에 대하여 順興의 蓮花가 처음부터 等間隙을 생각하지 않고 그려진 繪畫의으로 能熟한 筆致의 壁畫이며 다른 三 蓮花가 八瓣을 基本으로 整然하게 그려진데 比해 瓣의 大小도 同一하지 않을 뿐 아니라 七瓣이라는 奇數로써 處理된 點이 다르기는 하지만 樣式的인 基準은 벗어남이 없다고 하겠다. (順興 蓮花의 奇數 花瓣의 異例的인 表現에 대하여는 前出한 肝城里 蓮花塚 蓮花(圖 11)가 九瓣의 奇數로 表現된 例도 있음을 指摘하여 둔다.

八

끝으로 이 四種의 蓮花에 前揭한 高句麗의 여러 蓮花를 紹介시켜 다시 한번 綜合的인 考察이 있어야 하겠다.

以上 例示 學論한 十種의 蓮花는 高句麗 蓮花가 六種, 百濟·新羅·伽倻가 四種이다. 그러나 高句麗 蓮花의 例는 더 많이 指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類似한 例만을 選擇한 것이다. 高句麗 蓮花와 이 四種의 蓮花와의 連關은 매우 밀접하여 內里 蓮花는 扶餘와 順興의 蓮花와, 雙楹塚 後室의 蓮花는 托蓋과 高靈의 蓮花와, 雙楹塚 前室의 蓮花는 托蓋과 順興의 蓮花와 서로 樣式的인 連關이 있게 된다. 그렇다면 高句麗의 한 蓮花는 百濟·新羅·伽倻의 어느 한쪽과만 連關이 있지 않고 百濟와 新羅, 百濟와 伽倻, 이같이 두곳에 連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高句麗 蓮花의 樣式은 百濟, 新羅, 伽倻의 어느 한 나라

또는 두 나라의 蓮花의 樣式과 連關이 있다면 百濟·新羅·伽倻의 各國 蓮花가 서로 親緣이 있음도 理解될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비단 繪畫 나 線刻같은 平面的인 表現에서만이 아니라 瓦當이나 佛像 臺座같은 立體的인 表現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은 周知의 일이다.

以上 比較의 主眼은 繪畫나 線刻의 蓮花를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線에 있었고 色彩는 除外하였으나 한 가지만 指摘하여 들 점은 扶餘·順興·高靈의 壁畫가 모두 瓣端 周邊에 彩色가 있다는 點이다. 그리고 色은 모두 紅色을 쓰고 있다. 이러한 共通點은 高句麗 古墳의 蓮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一部 配色面에 있어서도 匹자의 共通點을 보게 된다.

### 九

以上の 親緣關係에서 밝혀져야 할 일은 相互의 文化交流에 따른 相互 영향에 관한 問題이다. 扶餘 陵山里 壁畫에 關하여는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해 見解가 밝혀진 바 있고 高靈 古衙洞 壁畫는 調査者에 의해 見解가 提出되어 있다. 먼저 陵山里 壁畫에 關한 見解를 보면

關野貞博士는 「朝鮮美術史」에서 「此支室의 장식은 高句麗의 경우와 같이 支那의 영향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蓮花·飛雲의 文樣은 南北韓式을 잘發揮하고 있다.」(「朝鮮의 建築と藝術」一九四一—所收四八面)라고 하였고 梅原末治博士는 「朝鮮古代의 墓制」에서

天井에 그린 蓮花와 飛雲은 지금도 色彩가 鮮明하며 그 위에 高句麗 壁畫와의 同似를 나타내고 있음이 認定된다. (同書一九四七—七四面)라 하였다. 또 金元龍教授는 「韓國美術史」에서

그 飛雲이나 蓮花文은 平南 大同郡 紫足面 內里 一號墳이나 平壤 眞坡里 一·四號墳 또 유명한 江西 遇賢里 大墓等 末期 高句麗 古墳의 그것들과 똑같이 大墓에서의 大板石 使用例와 함께 麗濟間의 文物交流를 잘 보여주고 있다. (同書一九六八—九二·九三三面)

라고 하였다. 한편 金和英氏는 「三國時代 蓮華紋 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陵山里 古墳 天井 蓮華紋은 瓣內에 珠文이 있는 八葉單瓣인데 百濟 古墳 壁畫에 나타나는 蓮花紋으로는 唯一한 例임으로 百濟에서는 그

系譜를 찾을 수 없으나 高句麗 眞坡里 四號墳의 蓮花紋과 比較하면 忍冬이 省略되었을 뿐 子房의 表現手法이 類似한 點、뾰족하기는 하나 高句麗의 他古墳의 例같이 길지 않은 點、蓮瓣 中央에 珠文이 있는 點 등과 두 壁畫의 雲紋樣式이 類似한 點과 아울러 比較할 때 陵山里 古墳 天井의 蓮花紋은 國境을 이뚀한 高句麗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 같다. (同書) 歷史學報 第三四輯—一九六七—一〇〇·一〇一(一面) 이와 같이 陵山里古墳의 蓮花는 高句麗와의 連關을 모두 是認하고 있다. 다음 高靈古墳의 蓮花에 關하여는 調査者인 金元龍教授가 「高靈古衙洞 壁畫古墳 略報」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一種의 二重蓮花이며 그것이 高句麗의 雙楹塚 天井石에서 보는 따위의 蓮花(朝鮮古蹟圖譜二 圖版五七一)의 系統이면서 花瓣속에 褐色點을 配置한 것이나 蓮花文 周圍에 있는 S形 雲文等 百濟의 宋山里古墳 壁畫와도 通하는 點이 있고 또 花瓣 사이 사이에 綠色의 꽃받침을 그린 것 같은 自己固有의 特色도 가지고 있다. (考古美術) 第五卷 第三號 一九六三)

다른 二例인 武寧王陵 托蓋蓮花와 順興古墳 壁畫의 蓮花文의 두 新出資料에 關하여는 筆者가 모두 高句麗의 系統을 따르면서 高靈의 蓮花와도 相通한다고 比較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 10

끝으로 이들 蓮花의 製作年代와 彼此連關에 있어 영향 方向에 關한言及이 있어야겠다. 먼저 高句麗 蓮花에 있어 雙楹塚은 五世紀末에서 六世紀初로 다른 例는 六世紀後半에서 七世紀前半에 걸친 製作이라고 推定되고 있다. 한편 陵山里 蓮花는 그 古墳의 築造를 扶餘時代로 보아 六世紀中葉에서 七世紀初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高靈 蓮花는 調査者 金元龍教授가 六世紀中葉으로 推定하고 있다. 武寧王陵 托蓋의 年代는 王妃의 卒年인 五二六年을 下限으로 順興 蓮花는 五九五年으로 推定함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들 年代를 比較하면 高句麗의 蓮花가 他三國의 蓮花보다 모두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兩者의 年代를 具體적으로 比較한 例로 前掲 金和英氏의 論放을 들 수 있다. 그는 陵山里 蓮花를 가리켜

그製作年代도 眞坡里古墳보다 약간 늦을 것으로 推測된다.  
고하였다.

이같이 高句麗 蓮花의 年代가 先行한다는 사실은 樣式 傳播의 源流가 그곳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前述한대로 高句麗와 他三國의 蓮花의 比較에 있어 모두 高句麗 系統임을 強調한데서도 그 源流가 어디에 있는가를 暗示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強調는 비단 壁畫에만 局限시킨 것이 아니고 壁畫가 그려진 古墳의 構造와도 아울러 내러진 判定이니 이는 當時 高句麗가 文化 全般에 걸쳐 先進하고 있었다는 暗示이기도 한 것이다. 例컨대 金和英氏는 百濟瓦當의 蓮花文을 論하는 가운데서 高句麗의 영향에 言及하여

高句麗系統은 百濟初期부터 末期에 이르기까지 繼續하여 底流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여 두고(前掲書 九一而)

云云 하였다.

한편 順興 蓮花에 있어서도 高句麗와 至近의 距離에 있었고 그곳이 元來 高句麗 領土였다는 點을 생각할 때 이곳에 高句麗 蓮花樣式의 영향이 미쳤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에 筆者는 例擧한 百濟·新羅·伽倻의 蓮花가 모두 高句麗系統이며 그 영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하고자 한다. 이러한 推定은 各其 蓮花의 型式上의 類似點을 主로 다룬 結果이지만 壁畫가 그려진 古墳 自體의 築造樣式 또는 其他의 彫刻 工藝에 屬하는 遺物乃至 一般的인 文物의 交流 등을 아울러 생각해도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當時 繪畫乃至 線으로 表現하는 蓮花의 樣式에 있어서는 高句麗가 先導的 役割을 하였다고 하겠다.

以上 百濟·新羅·伽倻의 蓮花들을 高句麗의 蓮花와 比較함에 있어 高句麗 蓮花의 例로 든 六種은 가장 近緣이 있는 例만을 擇한 것뿐이지 이와 類似한 蓮花는 더 많은데 對해 百濟·新羅·伽倻의 蓮花는 擧論할 수 있는 例가 三國을 通하여 繪畫로서는 單一例式뿐인 點은 論據 또는 結論에 취약점이 없지 않아 다만 試論이라는 但書를 부치고 앞으로 더 많은 例의 出現을 기대하고자 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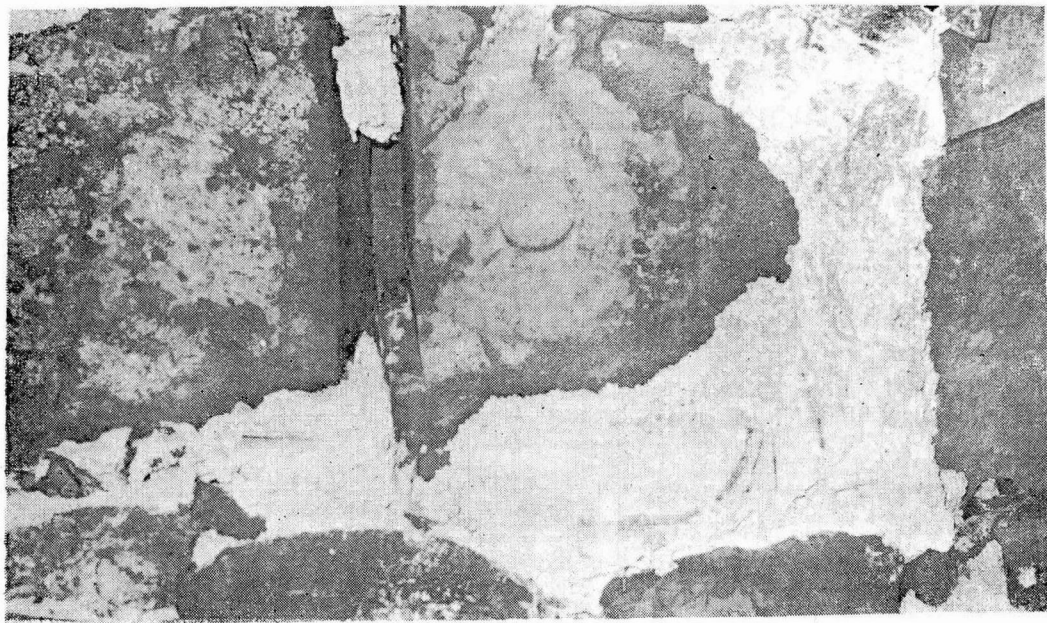


圖 13. 高靈 古衙洞 古墳 玄室 天井 蓮花